

현장

새만금 내측 공사현장 일탈행위 손 놓았나

“해경 공사 등 해당 관계기관 발빠른 대책 마련해야”

군산=백용규 기자

새만금 내측 준설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선박과 건설기계들의 일탈적 불법행위를 두고 해당 관계기관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준설선이 건설기계등록도 하지않고 중기등록 번호판도 갖추지 않은 채 국책사업인 새만금내부 공사현장에 투입됐는가하면, 이 준설선을 끌여주는 앵카작업선인 예인선조차도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갖추지 않은 데다, 유도선법에 따라 도선업허가를 득하고 영업해야 될 통선들까지 불법적인 운행에 가세하고 있다는 제보다.

이 때 유도선법은 유일하게 해경이 관할한다. 유도선업 허가는 유선인 유압선과, 도선업 허가는 육지와 건설현장을 오가며 사람과 물건을 실어나르는 통선으로 나뉜다. 이 때 건설사가 통선을 임차하면 자가용으로 구분되어 도선업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통선을 움직이는 선장을 임차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야만 되고 그에 따른 모든 채용서류를 갖춰야 가능하다.

더욱이 이 준설선은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모래를 운반하는 용도로 합법적으로 부선허가를 받은 비자항식 선박이다.

이 비자항식 부선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별표1, 건설기계범위 11조 건설기계신고의 대상으로 국토부산하 준설선 등록검사 관리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으로 '선박' 등록된 부선에 준설기기 설치한 선박인데 건설기계 등록없이도 준설공사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다.

여기에 군산시가 지난 2019년 5월께 준설공사 면허를 허가 해 준 준설공사업도 건설중기등록 요건에 맞춰는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될 대목이다.

이 현장의 준설선에 유류를 공급해야 할 유도선의 움직임도 그렇다. 이곳 새만금 내측은 군산 앞바다와 같은 항계 내 무역항이 아닌 항계 밖 해수면으로, 항계 내 무역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을 갖춰도 사업구역이 군산 항계 내로 한정돼 있어 영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인천항 등지로 옮겨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항방운송사업 등록을 갖춰야 된다.

이 새만금 내측 현장은 최근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국책공사 구역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선박들이 군산항을 통해 새만금 배수관문을 통과하여 항계 밖인 새만금 내측 현장에 합류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어지고 있다.

이러한 준설현장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옛 부터 그래왔다 하지만, 이제는 손바닥으로 드넓은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세상이다. 현실과 법적 요건에 맞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나?"며, 해경과 공사 등 해당 기관들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대해 준설선 업체측은 "예외 조항인 선박에 해당되어 이미 선박으로 등록된 경우 단지 건설기계관리법 중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며, 준설선에 건설장비를 설치하고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실군, 임실N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 오픈

임실군이 치즈돈가스와 치즈함박스테이크 등과 같은 치즈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임실N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의 문을 열었다.

군은 26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에 건립된 '임실N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심 민 군수와 진남근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고 주요시설 및 생산공정을 견학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실N치즈이용식품 가공공장은 당초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던 시설을 임실치즈를 이용한 2차 가공식품 생산시설로 리모델링 했다.

국비와 도비 11억5천만원과 군비 25억5천만원 등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999.8㎡에 1층으로 지어졌다.

이 공장은 1일 최대 10톤 규모의 치즈이용식

품인 치즈돈가스, 치즈함박스테이크, 치즈소시지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연간 240톤에 약 40억원 상당의 임실치즈 소비로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은 임실N치즈 소시지 등 무항생제 소시지, 육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진한&B가 맡는다.

군은 최고의 시설의 자랑하는 가공공장을 만든 만큼 대한민국 치즈 원조 임실N치즈는 물론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까지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치즈뿐만 아니라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2차 가공식품 생산과 고품질 제품 개발을 통해 임실치즈산업의 외연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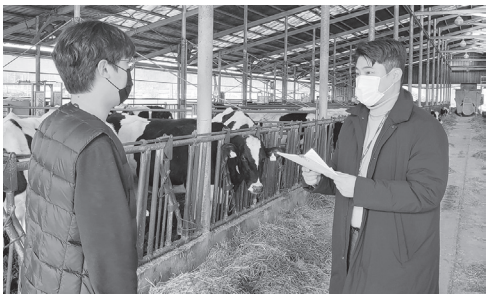
/박길주 기자

임실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집중점검

임실군이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정가수 사함등 지도점검으로 각종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축산악취 대처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 및 무단 방치하여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악취 배출원 밀폐 여부 관리 상태, 악취 저감제 살포 여부 등이다.

군은 이날 146개소를 점검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로 5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2건 등 모두 13건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무인 악취측정기 6기를 통한 악취 모



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군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길주 기자

김정기 부안군의원, 군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송곳질문

김정기(사진) 부안군의원이 2021년 부안군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 선별검사 이송 문제 및 코로나19 전담팀 인력 부족 문제 등 송곳질문을 통해 개선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부안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선별검사 이송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진사면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자가격리 중에 어떤 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별도의 활동을 했다”며 “추가로 선별검사를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면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고 최종 확진을 받으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강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감염병대응팀이 총 6명이지만 팀장은 병가



김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전담팀의 인력공백이 발생했으면 집행부를 통한 보건소 내에서 내부인사를 하든 해서 코로나19 전담팀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자 부안군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선별검사자 이송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담팀 인력 재배치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력을 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병하 기자



고창군, 숲가꾸기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숲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는 14개 시·군의 우수사례 발굴과 미흡 사례 개선을 통해 사업 품질 향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군은 경쟁 수목과 덩굴류 제거의 적정성, 조림목 보육, 가지치기의 적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군은 올해 700ha의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어린나무가꾸기 110ha, 큰나무가꾸기 3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50ha를 시행한 것이다.

“조림지 가꾸기”는 최근 3년간 조림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덩굴제거, 풀베기를 시행하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15년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을 제거하며 큰 나무가꾸기는 15년 이상 된 수목의 밀도 조절 등이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김성근 산림공원과장은 “고창의 산림자원이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숲으로 거듭나도록 가꾸겠다”고 밝혔다.

/안병철 기자

높을고창물, 먹거리 정기 배달서비스 시작

고창군 직영 온라인쇼핑몰(높을고창물)이 정기배달 서비스를 시작, '높을고창물' 홈페이지에 '높을고창물 구독' 메뉴를 만들었다.

높을고창물 정기구독 서비스는 지역의 특산물과 품질이 보증된 농수산물을 '꾸러미상품'과 '단독상품'으로 구성해 매주 또는 격주로 정기구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높을고창물은 매주 필요한 농산물을 정기적, 안정적으로 공급받길 원하는 고객과 1인 가구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즐기는 고객,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꾸준히 공급받아 건강을 유지하려는 고객 등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상품들이다.

다음달 9일에는 '수도권 119특수 구조대'를 찾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차원에서 고창 풍천장이 50kg를 직접 구워 기부한다.

/안병철 기자

부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302억원 지급

부안군은 농가 7818호, 1만 5190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02억원을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2817호, 344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001호, 268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6개 직불금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받게 되며 기타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준수사항 중 공동체 활동, 폐기물 관리, 영농기록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이행 시 2022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5%, 2024년부터는 10%가 감액돼 지급될 예정이다.

/고병하 기자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주민의 삶 기록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치유문화공간 청유당에서 '마음치유문화마을-삶의 흔적'을 기록하다를 주제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는 청유당(대표 염종영) 소속 시민문화활동가들이 3달 동안 30여 명의 성도마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나누는 삶의 흔적을 기록하여 자료집으로 정리해 발표하고 향후 활동을 전망한 것.

이들은 고창 예총 박종은 회장이 '삶의 흔적의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그는 “고창의 들과 산, 바다와 함께 호흡하며 사는 고창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기록하는 활동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문화도시의 힘을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도 염 대표를 비롯해 이미숙, 김계련 씨 등 8명의 시민문화활동가들과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채록하기 위해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고창문화도시의 문화력을 증진하는 밑거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안병철 기자

전춘성 군수,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수상

전춘성(사진) 진안군수가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은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JTBC가 후원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



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실에서 지역의 체감경기와 현실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혁신사례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양병재 기자

진안군,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 개최

진안군은 26일 청년공간 월랑에서 진안 출신(주)위더스제약 성대영 대표를 초청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년들에게 성 대표가 전하는 청년 희망메시지'를 주제로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했다.

성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청년협의체를 비롯한 창업 청년 20명과 함께 위더스제약의 성공 신화와 창업 경험담을 나누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방향을 안내하며, 청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대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올바른 판단력이라며 직접 경험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새로운 창업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업가로 성장해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인 진안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좋은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고향과 후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했다.

진안 동향면, 공공비축미 5,230포 매입 추진

진안군 동향면은 26일 수확 선별장에서 2021년 공공비축미 5,230포(40kg)를 매입 하였다.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담으로 신동진 4,670포, 해담 560포가 나와 신동진의 비율이 90%에 달했다.

당일 5,220포는 261톤백(800kg)로 작업이 이루어져 포대비 수매보다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64농가는 40kg 포대 비 기준으로 3만원을 우선 지급금으로 받고, 2021년 10~12월 전국 평균 쌀값이 결

정된 후 환산된 가격으로 12월 말 경 차액금을 정산 받게 된다.

동향면이 올해 실시한 '벼 병해충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깨시무늬병과 세균벼멸마름병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 벼 재배면적 120ha 중 15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주 재배 품종인 신동진이 병해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매 참여 농가들은 "신동진 품종이 병해충에 취약하다. 그에 대한 대책과 수매 품종 변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병재 기자

김연식 부안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연식(사진) 부안군의원이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7000억원에 이르는 2022년도 본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 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삭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 재량사업에 대해 집중심사 하겠다”며 “대규모 사업은 착공을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어 심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 사업예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연내집행 불가사업, 선심성 예산, 보조금 집행 부적격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어느 때 보다 더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병하 기자